



지식재산권 소송보험 도입 3년, 평가와 과제

송윤아 연구위원

요약

■ 2010년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소송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보험제도가 도입되어 정부 지원하에 현재 3년째 운영 중임. 지식재산권 소송보험의 최근 3개년 보험료 총액은 약 20억 원으로 97개 기업이 가입하였으며 정부의 보험료 지원액은 약 14억 원임. 지난 2년 동안 54건의 보험금 지급이 있었으며 총 지급보험금은 약 10억 원에 이룸. 지난 3년 간 지식재산권 소송보험은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중소기업의 인식 제고와 기업의 분쟁대응력을 제고하는 실질적 지원 수단으로 평가되고 있음. 지식재산권 소송보험이 분쟁대응수단으로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정부지원금 규모 확대를 통해 보험가입 기업을 늘리되, 개별 기업 당 정부의 보험료 지원 비율을 기업의 위험도에 따라 차등화해야 함.

■ 특허관리전문회사들(Non-Practicing Entities, 이하 'NPEs'라 함)의 등장과 함께 지식재산권의 무기화·자산화 등으로 국제분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¹⁾

- 특허청에 따르면 최근 국내 기업과 외국 기업 간 특허분쟁건수의 대부분이 NPEs에 의해 주도됨.
 - NPEs는 생산 활동 없이 특허 소송 및 관리를 통해 수입을 창출하는 기업 또는 개인을 통칭하는 것으로서 초기에는 타인의 특허를 취득하고 그 특허권을 활용해 제조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모델이 주를 이루었으나, 최근에는 특허권 행사로부터 제조기업을 보호하는 방어적 목적으로 특허를 매입하고 회원사들의 회비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음.
- 또한 외국기업들이 특허분쟁을 국내기업의 자국시장진입을 차단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거나 각국이 자국 기업에 유리한 판결·행정조사 등으로 지식재산권을 간접적인 무역장벽으로 활용하는 경향이 있음.

1) 국가정책조정회의(2012. 9. 28), 「국제 지식재산권 분쟁동향 및 대응방안」.

〈표 1〉 국내기업-외국기업 간 국제특허분쟁 현황(2007~2012. 7)

(단위: 건)

연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7
분쟁건수	201	181	154	186	278	109

자료: 한국지식재산권협회.

특히, 국제적으로 NPEs의 주요 소송대상은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인 것으로 나타남.²⁾

- Bessen and Meurer(2012)에 따르면, NPEs로부터 제소당한 기업의 연간 매출은 중간값 기준으로 1,080만 달러이고 제소당한 기업의 82%는 연간 매출이 1억 달러 미만임.
- 2000년대 초반 NPEs로부터 제소당한 기업 수는 600여 곳에 불과했지만 2011년 5,300여 곳으로 2004년 이후 연평균 36%씩 증가함.³⁾

우리나라는 2010년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소송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보험제도를 도입하여, 정부 지원 하에 현재 3년째 운영 중임.

- 특허청은 2006년부터 해외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해 분쟁 시, 심판 및 소송비용을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해주는 ‘심판·소송비용지원제도’를 운영하였음.
- 그러나 심판·소송비용지원제도가 지원하는 금액이 실제 소송비용에 훨씬 못 미치는 등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어 2010년부터 이를 보험제도(지식재산권 소송보험)로 운영하고 있음.
- 지식재산권 소송보험은 산업재산권을 보유한 중소기업과 매출액이 1조 원 이하인 중견기업의 지식재산권 소송에 소요되는 비용을 최대 5억 원까지 지원함.
- 지식재산권 소송보험 도입 시 정부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보험료의 70%를 지원하였으나 2013년부터는 중견기업 보험료의 최대 50%만 지원하기로 함.

지식재산권 소송보험의 최근 3개년 보험료 총액은 약 20억 원으로 97개 기업이 가입하였으며 정부의 보험료 지원액은 약 14억 원임.

- 지식재산권 소송보험의 규모는 수입보험료 기준으로 2010년과 2011년에는 7억여 원, 2012년에는 5억여 원임.

2) Bessen, J. and Meurer, M.(2012), “The Direct Costs from NPE Disputes,” Boston University – School of Law; Research on Innovation.

3) <https://www.patentfreedom.com/about-npes/litigations/>

- 지난 3년 동안 97개 기업이 평균 1,978만 원을 보험료로 납부하였으며, 이중 개별 기업이 실제 부담한 보험료는 평균 552만 원임.
- 정부지원 규모는 2010년과 2011년에 각각 5억여 원, 2012년에 3.5억여 원이었으나 2013년에는 소폭 증액될 예정됨.
- 담보국가별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호주가 87건으로 가장 많음.
- 세부 지원분야별 현황을 살펴보면, 소제기 97건, 권리보호 79건, 피소대응 74건임.

〈표 2〉 2010~2012 지식재산권 소송보험 가입현황

(단위: 기업 수, 천 원)

구분	가입기업	총보험료	정부지원 보험료	정부지원 비율	기업부담보험료 평균
2010	31	692,985	507,510	73.2%	5,983
2011	37	726,244	527,027	72.6%	5,384
2012	29	499,599	349,365	69.9%	5,180
합계	97	1,918,828	1,383,902	72.1%	5,515

자료: 한국지식재산권협회.

〈표 3〉 2010~2012 지식재산권 소송보험 담보국가별 지원현황(중복 포함)

(단위: 기업 수)

아시아·호주	북미	유럽	중동	영국	중남미·아프리카	중국	국내
87	37	34	24	23	21	15	3

자료: 한국지식재산권협회.

■ 지식재산권 소송보험 보상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년 동안 54건의 보험금 지급이 있었으며 총 지급보험금은 약 10억 원에 이릅니다.

- 담보별 지급보험금을 살펴보면 소제기는 7억 8천만 원으로 건당 1,800여만 원(43건), 권리보호 2억 2천여만 원으로 건당 2500여만 원(9건), 피소대응은 1700여만 원으로 건당 830만 원(2건)임.

〈표 4〉 2010~2011 지식재산권 소송보험 지급보험금 내역

(단위: 천 원)

담보	지급건수	지급보험금				
		합계	구성비	평균	최저	최대
소제기	43	784,465	76.6%	18,243	360	204,550
권리보호	9	223,599	21.8%	24,844	1,620	154,362
피소대응	2	16,624	1.6%	8,312	1,624	15,000
합계	54	1,024,688	100%	18,976	360	204,550

주: 2012년 가입건의 보험금 지급액은 진행 중.
자료: 한국지식재산권협회.

■ 지난 3년간 지식재산권 소송보험은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중소기업의 인식 제고에 기여하고, 기업의 분쟁대응력을 제고하는 실질적 지원 수단으로 작용한 것으로 평가됨.

■ 그러나 지식재산권 소송보험이 분쟁대응수단으로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부지원금 규모를 확대하여 보다 많은 기업이 보험가입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함.

- 현재 가입희망 기업이 급증하고 있어 소송보험 전액 자비부담 경험 유무, 보험지원금 경험, 지식재산권 전담조직 유무, 직무발명보상제도 운영 여부 등에 따라 지원 순위를 결정하고 있으며, 정부의 보험료 지원을 받지 못하는 기업이 다수 발생함.
- 2007년 심판·소송비용지원제도에 할당된 예산은 5억 9백만 원으로, 지식재산권 소송보험제도로 전환된 이후에도 예산증액이 이뤄지지 않음.

■ 둘째, 개별 기업 당 정부의 보험료 지원 비율을 점진적으로 줄이고 기업의 위험도에 따라 차등화함으로써 지원효과를 높여야 함.

- 가입을 희망하는 기업이 급격히 늘어나서 정부예산이 조기 소진되는 것으로 미뤄볼 때, 정부의 보험료 지원 비율이 낮아지더라도 소송보험에 가입할 기업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임.
- 현재 정부의 보험료 지원 비율은 기업의 위험도에 상관없이 동일하나,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기업에 더 낮은 보험료 지원 비율을 적용할 경우 한정된 자원이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음.
 - － 현재 보험요율은 업종별 분쟁위험, 기업 매출액, 기업보유 특허권의 고유위험, 보장지역 리스크, 가입금액 및 담보 등에 따라 위험을 세분화하여 반영하고 있음.

■ 셋째, 보험회사는 누적된 통계 등을 바탕으로 보유 및 출재 전략을 효율화함으로써 상품의 경쟁력을 제고해야 함.

- 지식재산권 소송보험을 제공하는 3개 보험회사들은 보험료의 50%를 비례특약으로 출재하는 조건으로 코리안리로부터 보험요율을 구독하고 있으며 지식재산권 소송보험에 특화된 소수의 손해사정사에 의존하고 있음.
- 따라서 현재 지식재산권 소송보험을 제공하는 보험회사들이 요율과 보상 측면에서 차별화된 전략을 가지고 경쟁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kiri](#)